

아동학대 및 학교에서의 폭력경험과 아동의 적응

Child abuse, violences in school and children's adjustment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박민정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보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Instructor : Park, Min-J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Prof. : Choi, Bo-Ga

〈목 차〉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teacher's violence, and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adjustment. The 451 subjects(238 boys and 213 girls) were selected from the 5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and 2nd graders of middle schools in Pohang City. The subjects reported child abuse, teacher's violence, victimization by peer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ronbach α ,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oys were more focused on physical · emotional abuse, physical · verbal victimization, and physical violence by teacher than girls. (2)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more focused on violence by teacher and peer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3) Influences of child abuse, teacher's violence, and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had difference among subtypes of child abuse, teacher's violence, and peer victimization.

- ◆ key word: 아동학대, 교사의 폭력, 또래 괴롭힘, 아동의 적응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 교사에 의한 심각한 체벌, 그리고 또래 괴롭힘 등 아동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폭력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최근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발생실태(한경혜·김영희, 1999), 개념(고성혜, 1992; 윤혜미, 1997), 그리고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발달과 적응상의 문제(김정옥·유도희, 1997; 이주연, 1996; 홍은주, 1998) 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내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고한다(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Salzinger, Feldman, & Hammer, 1993). 또한 부정적 경향이 학대 발생 당시의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박은미, 1999; Briere & Runtz, 1988),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하여 부모가 될 경우 자녀에게 다시 학대적인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김기환, 1995; 정준미, 1999; Simons, Whitbeck, Conger, & Wu, 1991)는 심각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체적인 구타만을 학대로 정의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학대 유형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가정이 아동의 인격형성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아동들은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정의 교육적인 기능이 학교로 많이 이전되고 학교에서 아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지금, 많은 아동들이 학교 내에서 교사나 또래들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발생 가능성성이 높은 것은

교사와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유교적인 전통으로 인해 선생님을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이나 혼계, 꾸지람 등은 대개 사랑의 매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현재는 이를 폭력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간혹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다. 학교상황에서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를 또래 관계를 포함하는 기타 관계의 자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Howes, 2000), 교사에 의한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아동들의 생활은 부정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일련의 행동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체벌의 개발적인 실태 파악이나 찬반에 관련된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실태나 이에 따른 아동의 발달상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계영(1998)은 체벌을 자주 받는 아동이 자아개념이 낮고, 공격성이 높으며, 도덕적 발달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은 체벌이 항상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이를 직접적인 체벌과 간접적인 체벌, 부적절한 직/간접 체벌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폭력은 또래 괴롭힘으로 이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정의된다(Olweus, 1980). 최근의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을 직접적이고 명백한 괴롭힘과 간접적인 관계상에서의 괴롭힘으로 분류한다. 명백한 괴롭힘은 다시 직접적인 신체적 방법을 사용하여 때리기, 차기, 밀기 등이 포함되는 신체적 괴롭힘과 욕하기, 별명부르기 등이 포함되는 언어적 괴롭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계상의 괴롭힘은 고의로 또래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그 정의와 실태 파악의 수준에서 발전하여, 현재 괴롭힘 피해아의 적응문제(도현심, 1999; 양원경·도현심, 1999; 한종철·김인경, 2000), 가해아와 피해아의 심

리적 특성(이민아, 1998) 그리고 유발원인(김혜원·이해경, 2000; 이지원, 1999; Graham & Juvonen, 1998)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폭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것은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과 아동의 성과 연령 등이다. 아동 학대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고(강경아·류점숙·신효식, 1999; 이소희, 1990),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학대는 감소하고 정서적 학대가 증가한다(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991)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 체벌의 경우도 신체적인 구타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 또는 간접적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고 보고된다.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서도 세부적인 하위영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남아가 더 많은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의 다수 연구는 성에 따라 괴롭힘의 행동에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6; Slee, 1994). 또래 괴롭힘의 하위 영역에 대한 연구 중 몇몇 연구(도현심, 1999; Crick & Grotpeter, 1996)는 또래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명백한 공격성과 관계상에서의 공격성으로 나누어 조사했고, 몇몇 연구(Bjorkqvist, Lagerspetz, & Kankainen, 1992; Russell & Owens, 1999)는 명백한 공격성을 다시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인 괴롭힘으로 세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점숙과 유안진(1999)이 주장한 것처럼,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인 괴롭힘으로 세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에 대한 하위 영역을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관계상에서의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한다. 연령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또래 공격성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위유형별 연령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을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성과 학년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차

이를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고(Bolger 등, 1998; Okun, Parker, Levendosky, 1994), 불안(이혜련, 1998; Hennessy, Rabideau, Cicchetti, & Cummings, 1994)과 우울(Ster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Dawud, Cortes, Krispin, & Lorey, 1993)증상이 높고, 공격성이 높다(강경아 등, 1999; 이주연, 1996)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폭력의 경우도 체벌을 자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체벌을 자주 받는 학생이 자아개념이 더 낮고, 공격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전계영, 1998).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은 아동의 경우도 자아존중감이 낮고(양원경·도현심, 1999; Boulton & Smith, 1994), 외로움(도현심, 1999)과 불안(최보가·임지영, 1999; Slee, 1994)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교사의 폭력, 그리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 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임을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각각의 폭력 유형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만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아동은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 두 환경의 영향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 힘드므로 아동의 폭력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 유형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아동의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귀연(1994), 이혜련(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만을 적응으로 제한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동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폭력을 포함시켜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과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폭력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폭력이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폭력(가정내의 학대, 교사의 폭력, 그리고 또래 괴롭힘)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년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폭력(가정내의 학대, 교사의 폭력, 그리고 또래 괴롭힘)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가정내의 학대, 교사의 폭력, 그리고 또래 괴롭힘)은 아동의 적응(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포항시내 2개교 초등학교 5학년 208명과 3개교 중학생 2학년 243명으로 총 451명이다. 남아가 238명이고 여아가 213명이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1) 아동학대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고성혜(1992), 김현수(1997)의 척도를 참고로 18문항을 추출하여 그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8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학대에는 때리기, 물건 던지기, 차기, 막대기 등으로 때리기 등의 5문항이 포함되고, 정서적 학대에는 심한 욕 등의 5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얼마나 자주 학대를 경험하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 '전혀 경험한 적 없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상'까지의 1-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이다.

2) 교사폭력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 중 교사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수집하여 11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경험한 적 없다'의 1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1 문항을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I은 손바닥 때리기, 손들고 벌서기, 종아리 때리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수용 가능한 교육적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수용 가능한 체벌'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는 차별대우, 무시하기, 욕하기,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정서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서적 폭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때리기, 물건 던지기, 온몸을 마구 때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이는 아동이 수용하기 어려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체벌이라 생각되어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은 3문항으로, Cronbach α 는 .75이고, 요인 II와 III은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74, .80이다. 전체 척도의 Cronbach α 는 .85이다.

3) 또래 괴롭힘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형태 중 또래에 의해 야기되는 부분을 측정하고자 Crick과 Grotpeter(1996)의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의 문항과 Russell과 Owens(1999)의 정의를 참고로 사용하였다. 또래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12문항이 선정하였으나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 후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 3개가 제외되고 총 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신체적 공격은 얹어맞기, 밀기, 때리겠다는 협박 등이 포함되고 언어적 공격은 또래로부터의 직접적인 놀림, 욕설, 고함 등이 포함된다. 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1)

배경변인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38	52.8
	녀	213	47.2
학년	초등학교(5학년)	207	45.9
	중학교(2학년)	244	54.1
아버지 연령	35-40세	103	22.8
	41-45세	243	54.6
	46-50세	81	17.9
	51세 이상	21	4.7
어머니 연령	30-35세	22	4.9
	36-40세	234	51.9
	41-45세	164	36.2
	46세 이상	31	6.9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0	8.9
	고등학교 졸업	228	50.6
	대학 졸업 이상	183	40.6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2	13.7
	고등학교 졸업	265	58.8
	대학 졸업 이상	124	27.5
아버지 직업	무직·단순 노무직	42	9.3
	생산직	135	29.9
	판매 서비스직·자영업	116	25.7
	사무관리직	122	27.1
	전문직	36	8.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92	64.7
	기타 직업 종사	159	35.3
가정의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4	12.0
	100-150만원	116	25.7
	150-200만원	132	29.3
	200-250만원	52	11.5
	250만원-300만원	29	6.4
	300만원이상	68	15.1

계상의 과롭힘에는 나쁜 소문 퍼뜨리기, 무시하기, 끼워주지 않기 등이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별로 3문 항씩 구성되고, '전혀 없었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과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76이다.

4)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의 4점 척도로 된 10문항의 척도를 수정·번안한 배문조(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79이다.

5) 우울과 불안

아동의 우울과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귀연(1994)의 불안척도와 우울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재구성한 권미연(1997)의 불안 및 우울척도를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이 9문항이고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이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불안척도가 .88이고, 우울척도는 .90이다.

3. 조사절차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와 훈련된 조사원이 해당 학급에 가서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응답이 끝난 즉시 회수하였다. 총 520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503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편부모가족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45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III. 결과

1. 아동의 성에 따른 폭력 경험

아동의 성에 따라 경험하는 폭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처럼 가정에서의 학대경험($t=2.57$, $p<.05$)과 또

래에 의한 괴롭힘($t=4.42$,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t=2.53$, $p<.05$)와 정서적 학대($t=2.02$, $p<.05$)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래 괴롭힘의 경우는 신체적인 괴롭힘($t=5.29$, $p<.05$)과 언어적인 괴롭힘($t=5.26$, $p<.05$)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인 괴롭힘의 경우에는 어떠한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에 의한 폭력 경험은 신체적인 폭력의 경우($t=2.33$, $p<.05$)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학년에 따른 폭력 경험

학년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에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에 의한 폭력경험은 수용가능한 체벌, 정서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 모두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고($t=-5.66$, $p<.05$),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관계상의 괴롭힘 모두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

〈표 2〉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폭력 경험

종속변수	독립변수		t	초등학교(207)		t
	남(238)	여(213)		M (SD)	M (SD)	
아동학대	1.39(.57)	1.27(.39)	2.57*	1.35(.53)	1.32(.46)	.61
신체적 학대	1.39(.58)	1.27(.41)	2.53*	1.41(.59)	1.27(.42)	2.97*
정서적 학대	1.39(.74)	1.28(.45)	2.02*	1.29(.61)	1.38(.63)	-1.51
교사의 폭력	1.80(.76)	1.72(.70)	1.17	1.57(.52)	1.93(.84)	-5.66*
수용가능한 체벌	2.75(1.24)	2.70(1.23)	.41	2.44(1.02)	2.97(1.34)	-4.78*
신체적 폭력	1.30(.64)	1.17(.47)	2.33*	1.11(1.38)	1.34(.67)	-4.56*
정서적 폭력	1.60(.98)	1.54(.85)	.73	1.37(.70)	1.74(1.04)	-4.53*
또래 괴롭힘	1.23(.32)	1.13(.19)	4.42*	1.25(.34)	1.12(.18)	5.03*
신체적 괴롭힘	1.13(.33)	1.02(0.09)	5.29*	1.11(.29)	1.05(.22)	2.17*
언어적 괴롭힘	1.52(.54)	1.29(.37)	5.26*	1.49(.51)	1.34(.45)	3.45*
관계적 괴롭힘	1.19(.38)	1.19(.35)	.06	1.30(.45)	1.10(.25)	5.77*

* $p<.05$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03$, $p<.05$). 가정에 서의 학대경험은 신체적인 학대 부분에서만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7$, $p<.05$).

3. 폭력경험과 아동의 적응

1) 폭력 경험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 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교사에 의한 체벌·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래에 의한 신체적·언어적·관계적 괴롭힘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beta = -.15$), 또래에 의한 언어적인 괴롭

힘($\beta = -.13$), 그리고 교사의 수용가능한 체벌($\beta = -.10$)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와 교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신체적·관계적인 또래 괴롭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폭력경험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경험하는 폭력 유형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에 의한 관계적인 괴롭힘($\beta = .27$), 교사에 의한 정신적인 폭력($\beta = .20$), 그리고 부모에 의한 정서적인 학대($\beta = .11$)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체적 학대, 교사의 수용가능한 체벌과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언어적인 또래 괴롭힘은

〈표 3〉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부모의 정서적 학대	.22	.05	22.66*	-.25	-.15
또래의 언어적 괴롭힘	.27	.07	17.24*	-.54	-.13
교사의 수용가능한 체벌	.30	.09	12.92*	-.14	-.10

* $p<.05$

〈표 4〉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또래의 관계적 괴롭힘	.30	.09	45.29*	.57	.27
교사의 정서적 폭력	.38	.15	37.86*	.17	.20
부모의 정서적 학대	.41	.17	27.17*	.13	.11

* $p<.05$

〈표 5〉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교사의 정서적 폭력	.30	.09	44.42*	.23	.25
또래의 관계적 괴롭힘	.35	.12	28.47*	.31	.14
부모의 정서적 학대	.37	.14	20.72*	.14	.10

* $p<.05$

아동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폭력경험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폭력경험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의 정서적인 폭력($\beta = .25$), 또래의 관계적 괴롭힘($\beta = .14$), 그리고 부모에 의한 정서적인 학대($\beta = .10$)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신체적인 학대, 교사의 수용 가능한 체벌과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또래에 의한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성별에 따른 폭력 경험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의 학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 모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경아 등, 1999; 원지영, 1998; 이소희, 1990)와 남아가 여아보다 언어적인 공격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김은미(1996), Straus(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유순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적이므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남아가 더 많다는 Gil(198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정서적으로 강인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부모의 성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신체·정서적 학대 경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고성혜(1992)는 신체적 학대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곽영숙과 홍강의(1987)는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아가 더 많은 신체적 학대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고성혜(1992), 김혜련(1994), 그리고 원지영(1999)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결과는 조사 대상과 분석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 기인된 것일 수 있다. 교사에 의한 폭력 경험은 부적절한 신체적인 폭력의 경우에만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체벌과 부적절한 체벌을 경험한다고 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에 더 순응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부여하는 적절한 신체적 체벌 수준을 교사가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래 괴롭힘의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인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관계적인 괴롭힘은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지만, 관계적인 괴롭힘에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이점숙·유안진, 1999; 최보가·임지영, 1999; Crick & Grotpeter, 1996; Olweus, 1994)와 일치하였다. 성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물리적·신체적·직접적인 또래 괴롭힘의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피해경험을 보고하는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공격성에 대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Crick & Grotpeter, 1996), 남아가 더 높다는 연구(박창한, 1990; 배재현, 2000),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인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py, 1989; Crick & Grotpeter, 1995)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또래괴롭힘의 측정이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측정되는 것에 기인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관계적인 괴롭힘 발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 아동의 학년에 따른 폭력 경험 유형의 차이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학대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학대의 발생이 줄어든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아동학대예방협의회, 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학대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김혜련(199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받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이 진행될수록 부모가 신체적인 통제보다는 심리·정서적 통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사의 폭력은 수용가능한 체벌,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 모두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의 차이에 기인하리라 추측된다. 교사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각 아동에 적합한 지도방법을 발견하기 쉬우나 교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개개의 학생에 적합한 조언이나 관리적인 방식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래 폭력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그리고 관계상의 폭력 모든 영역에서 초등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 폭력을 당하는 아동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배재현, 2000; 최보가·임지영, 1999; Boulton 등, 1992; Olweus, 1994; Smith & Withney, 199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논리적인 사고가 증가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풍부해지므로, 타인을 폭롭히는 폭력적인 공격행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폭력은 감

소하지만, 언어적 폭력은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Perry, Kusel, 그리고 Perry(1988)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고, 5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신체적인 공격은 적게 보고하지만, 언어적인 공격은 더 많이 보고한다는 이점속과 유안진(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Perry 등(1988)은 연구대상이 3학년-6학년까지였고 이점속과 유안진(1999)의 연구도 그 대상이 3학년과 5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의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또래 폭력의 유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한 폭력형을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으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3.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형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형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 또래에 의한 언어적 폭력과 교사의 체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ook(199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Bolger 등(1998)은 정서적 학대보다는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인 학대가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지만, 이는 조사에 사용한 학대 하위유형과 척도구성이 본 연구와 다르고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와는 달리 이들의 조사대상은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일 수 있다. 또한 또래 폭력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양원경·도현심(199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Egan과 Perry(1998)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또래 폭력함을 세분화하지 않고 세분화된 다요인의 자아존중감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또래 폭력함 유형을 세분화하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개념을 사용하여 그 관계를 조사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체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개념이 낮다고 보고한 전계영(1998)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기타 폭력 유형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을 하위유형별로 나누어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형은, 또래에 의한 관계상의 괴롭힘, 교사에 의한 정서적 폭력, 그리고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우울과 관련있다는 기존연구들(이민아, 1998; 한종철·김인경, 2000)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우울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들(이혜련, 1998; Briere & Runtz, 1988; Cook, 1995)과도 일치하였다. 부모의 신체적 학대, 교사의 체별과 정서적 폭력, 그리고 또래의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의 경우처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정상집단의 아동이고, 교사의 폭력과 또래의 괴롭힘을 세분화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형은, 교사의 정서적 폭력, 또래에 의한 관계상의 괴롭힘, 그리고 부모에 의한 정서적인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언어적 폭력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이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최보가와 임지영(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최보가와 임지영(1999)의 경우, 또래 괴롭힘을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누어서 불안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관계상의

괴롭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명백한 괴롭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아주 심한 신체적 폭력이 아닐 경우, 아동의 불안에는 정서적인 폭력유형이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가정, 교사, 그리고 또래에 의한 폭력 경험을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살펴본 결과,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보다 간접적이고 언어적이며 정서적인 폭력 유형이 아동의 적응에 훨씬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부적응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연옥과 박인아(200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교사의 '부적절한 직접체벌'이 가장 부정적이라고 보고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나온 것은 척도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김연옥과 박인아(2000)의 경우 신체적 학대의 하위 문항에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예, 칼 등의 흉기를 사용)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척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신체적 체벌을 허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내용을 아동 스스로가 경미한 수준으로 생각하여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신체적인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의 경우에도 교사에 의한 폭력을 정의하는 방식이 본 연구와 달라서 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이 정의한 '부적절한 직접체벌'은 교육의 수단으로써의 체벌이 아니고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상당부분 억울하다고 지각하는 형태의 체벌이므로 신체적인 폭력이라기 보다는 정서적인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

다.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유형의 폭력이 아동의 부적응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앞으로의 아동과 관련된 폭력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의 근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폭력에 대한 이해의 상당부분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것이다. 부모와 교사에 의한 신체적인 체벌은 매스컴의 개입과 홍보를 통해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신체적인 폭력의 경우 피해정도가 눈에 쉽게 드러나고 사용하는 가해자도 명백한 경우가 많아서 개입 및 예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학대와 폭력, 관계상의 괴롭힘은 피해정도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서 신체적 폭력보다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자와 정서적인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개입에서도 다른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리적,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유형의 폭력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공격희생자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척도 개발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폭력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성격 특성이 폭력 경험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을 부모학대, 교사의 폭력, 그리고 또래 괴롭힘으로 정의하여 이 세 유형의 폭력경험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고,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폭력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당했고,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에 의한 신체적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했다. 또한 교사에 의한 부적절한 신체적인 폭력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

둘째,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학교에서의 폭력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수용가능한 체벌,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서적 폭력의 경우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모든 유형의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아동이 경험한 폭력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정서적 학대, 또래의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교사의 체벌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고,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 교사의 정서적 폭력, 그리고 부모의 의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정서적 폭력,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 그리고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을 부모, 교사, 또래에 의한 것으로만 제한하여 측정하였으나, 아동이 폭력을 경험하는 환경은 가정과 학교 이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타의 환경(지역사회, 매스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빈도와 정도만을 살펴보았으나, 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최초 노출시기, 지속기간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학교환경에서의 폭력 그 중에서도 교사 폭력에 대한 연구는 실태파악이나 단순한 찬반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발달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 괴롭힘척도를 더 확장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학교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괴롭힘 형태가 포함되지는 못했다. 이에 관련된 더 적절한 측정도 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다양 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아존중감, 우울, 그리고 불안만을 적용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폭력 하위유형에 따른 아동의 더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경아·류점숙·신효식(199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부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2), 43-55.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영숙·홍강의(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5, 37-52.

권미연(1997). 약물남용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또래관계적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환(1995).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을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2, 21-34.

김연옥·박인아(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4-127.

김은미(1996).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유도희(1997). 아동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47-160.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이해경(2000).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초기 성인기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창한(1990).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공격행동유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문조(2000). 가출청소년의 심리·가족적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재현(2000). 청소년의 또래괴롭힘과 우정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223-238.

윤혜미(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1, 393-422.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1998).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희(1990).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이주연(1996).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 피해에 미치는 영향-공격적 및 소극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1998).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계영(1998). 학생의 체벌받는 정도와 공격성, 자아개념 및 도덕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준미(1999).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경혜·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27-3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 한종철·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으로 본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in, A. (1992). The development of direct and indirect aggressive strategies in males and females. In K. Bjorkqvist & P. Niemela (Eds.), *Of mice and women: Aspects of female aggression*. San Diego: Academic.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oulton, M.J. & Smith, P.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ep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ook, A. B. (1995). Childhood maltreatment and parental attachment. UMI Dissertation Services.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Egan, S.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Gil, D. G.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43-644.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587-599.
- Hennessy, Rabideau, Cicchetti, & Cummings. (1994). Response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to different forms of interadult anger. *Child Development* 65, 815-828.
- Howes, C. (2000). 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1-204.
- Okun, A., Parker, J.G., & Levendosky, A.A. (1994). Distinct and interactive contributions of physical abuse,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hildren'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77-98.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sua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erry, D. G., Kusel, S.J., & Perry, L.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Russell, A., & Owens, L.(1999). Peer estimates of school-aged boys' and girls' aggression to same-and cross-sex targets. *Social Development* 8(3), 364-379.
- Salzinger, S., Feldman, R. S., & Hammer, M.(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 169-187.
- Simons, R.L, Whitbeck, L.B, Conger, R.D., & Wu, Chyi-In(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mith, P. K., & Withney, L.(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Straus, M. A.(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